



# 마리아사업회 총회를 위한 작업 문서 요약본에서 발췌

세계 3젠 운동과  
일치를위한청소년 운동 본부에서 준비

(이 문서는 2020년 3젠학교(Scuola Fuoco 2020)에서 나온  
총회 준비를 위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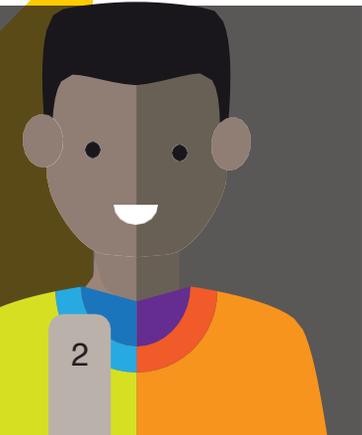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향후 6년 동안  
이 운동에 무엇을 바라실까요?  
일치의 특은이 더욱더 교회와  
인류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으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른이나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 등 우리 모두가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성덕에 이르기 위해 함께 나섰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운동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끼아라** (1977년 1월, 로카디파파에서)



# 환경과 미래



“우리는 우리의 정원이자 보금자리인 지구를 돌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며,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모든 것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곧 각각의 것이 다른 각각의 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끼아라 루빅)

“만일 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얼굴을 스치는 바람과 손에 와닿는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라.” (부처)

## 소개

제안들에서 우리는 생태적 위기에 응답해야 할 시급성을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역사는 우리 운동에게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할 구체적이고 단호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활 환경의 모든 차원에서 분명한 생태적 선택을 하도록 불렀어요.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영성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라는 일치의 관점에서 전 지구적 비전을 지니고 생각과 행동 면에서 기여할 수 있어요.”**

## 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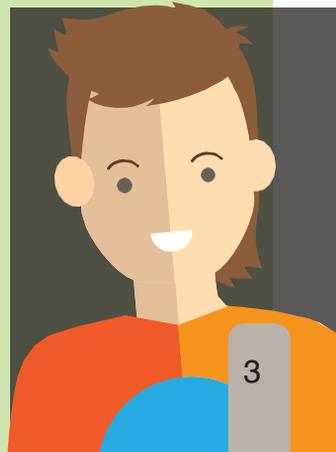
>제안들에 따르면, 생태에 관하여 좀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시급해요.

>우리가 과연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고, 그 생각을 일상의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없이 떠도는 전염병으로 매일 같이 수십만의 희생자가 나오는 응급의료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 3젠들의 목소리: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몫을 하고 싶어요.



# 나눔과 경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행전 4,32)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세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믿고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섭리가 있으니까요.” (끼아라 루빅)

## 소개

새로이 물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이상의 초창기의 모범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제안들이 나왔어요.

자극이 되는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물질적인 나눔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자각과, 외부적으로는 지금 세계의 경제적 도전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물질적 나눔(재산의 공유)와 ‘주는 문화’, ‘모두를 위한 경제’를 통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빨강색에 대해 더 공부하고, 세계의 경제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자는 제안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더 큰 공동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이 운동에 속한 모든 이들의 참여는 물론, 더욱 투명하게 일하며, 우리 운동의 경제 활동이나 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 3젠들의 목소리:

물질적 나눔(재산의 공유)을 더욱 강화하여, 그것이 그저 3젠들만이 아니라 이 운동 모든 가지에서도 더욱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어요.

젠대회나 그밖의 행사에 참가할 자금이 부족한 3젠들을 위해서 3젠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젠대회를 열도록 해요.

세계 경제 상황(예들 들어, 기후문제 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아요.

## 도전과 과제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들과 하느님 섭리로 도착한 선물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점점 더 커가는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성의 비전에 부합되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 구역 공동체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2-13)

“사랑으로 준비된 것보다 더 잘 조직된 것은 없으며, 사랑으로 결합된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없다.” (끼아라 루빅)

“공동체”라는 단어는 그 말이 전달하는 의미로 인해 좋은 느낌이 듭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 소개

서로 간의 사랑이 있는 장소로서 구역 공동체에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각 가지 사이의 삶을 더욱 함께 나누며, 신뢰의 문화를 장려하고, 모두에게 이 운동을 이끌어 갈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고취시킬 것을 제안해요.

구역 공동체들은 이 운동의 모든 현실들을 품고, 그 지역에서 일치를 촉진하도록 불렸는데, 다양한 갈래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것을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저변에서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실현해요.

어떤 곳에서는 구역 공동체와 그 구역 본당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환경 세포를 되살리고, 교회나 시민 조직에 좀더 참여함으로써 각 참여 기관들이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더 잘 부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기도 해요.

## 도전과 과제

>때로는 구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고, 서로를 그리 잘 알지도 못해요.

>어떤 공동체는 활기가 없는 것 같고, 그 구역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나 활동 등이 부족해요.

>우리는 어떻게 각 구역의 시민권익이나 사회, 문화적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 3젠들의 목소리:

청소년, 젊은이, 어른들 사이의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요. 우리에게 서로를 알고, 함께 축하하며, 대화나 경험담을 나누고, 서로 깊이 교류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을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방식으로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현실을 알고 신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의 시각을 나누고, 어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 대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미리 단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방어벽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고, 인간적 온정을 베풀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 모두가 이 ‘고유 목적’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렇습니다.” (끼아라 루빅)

“내 마음은 내가 만나는 모든 남녀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척도입니다.” (K. 험멜레)

## 소개

대화는 이 운동의 생명력이며, 이 영성의 ‘고유 목적’이에요. 그러니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나 젊은이들과 대화의 문화, 수용의 문화를 증진할 것을 제안해요.

범람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세상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영성을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요. 이 영성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내도록 해요.

끼아라의 메시지(“하얀 빛”)를 기꺼이 받아들인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켜요.

양성 면에서 전문가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에 이르는 고속도로”로서 5 대화의 중요성 강조해요.

이 운동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요.

### 3젠들의 목소리:

세대 간의 대화와 지원, 상호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고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요. 어른들이나 포콜라레와 함께, 우리 구역 공동체에서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우리 도시의 주요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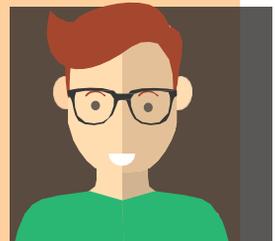
유엔이나, 유네스코, 세계식량농업기구 등 세계적 기구들과 관계를 강화시켜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널리 전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여러 종교들 사이의 대화를 증진시켜요.

## 도전과 과제

>종종 우리는 우리 시대가 지닌 이슈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가 현재의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 사이의 일치를 방해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 전달과 소통



“교회가 바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듯이,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의 크기를 넓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치는 참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도원은 세상이에요.” (끼아라 루빅)

“때로 우리를 사로잡곤 하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던 우리 이상을 전하고 싶은’ 그 광적인 열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상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이든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끼아라 루빅)

## 소개

어떤 담화나 모임 보다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을 통해 우리 고유의 모습을 전달해요. 복음적인 이야기에 바탕을 둔 경험담을 나누어요. (새로운 담화).

미디어 분야에 더 많이 존재를 알림으로써 일치된 세상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해요.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모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시대에 적합한 세상의 보편적인 언어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영성적인 것도 포함하여) 표현해요.

전 운동 차원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세워요. 합동전화, 그물 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동영상과 출판사 등 각 매체에 따라 전략을 세워요. 여러 지역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연결해요.

### 3젠들의 목소리:

열고

소통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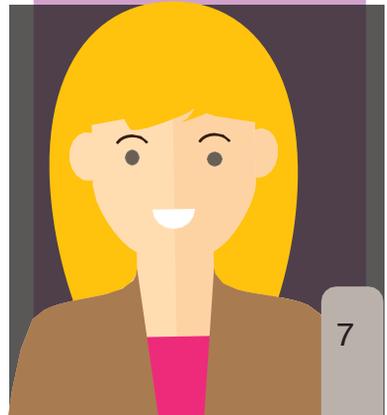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려면 이 운동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더 쉽고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소개해요.

우리 3젠들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지닌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식으로 어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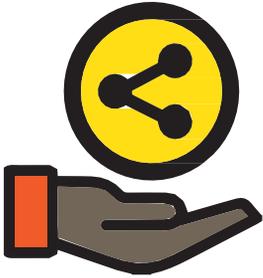
## 도전과 과제

>우리는 이 영성을 말로, 쉬우면서도 정확한 용어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더 직접적인 복음적 용어를 쓰려는 사람들도 있는 등 선호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 증거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끼아라 루빅)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느 누구든 그 전보다 더 나아지고 행복해져 돌아가게 합시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내 삶은 바로 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 소개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큰 타격을 받은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고유 목적’이 일치할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대 간, 종파 간, 종교 간의 만남이나 시민 사회와의 만남을 장려해요. 개인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여전히 그 강력한 증거가 되어요.

그러므로 포도송이나 환경세포를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더욱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해요. 나온 제안들을 보면, 작은 이벤트를 조직하거나 하여 우리 모임을 다른 이들에게 개방하고 싶어하는 열망에 놀라게 되어요.

소도시들은 계속 영속적인 일치를 살아가는 “실험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각 영혼 깊은 곳에 다가가시는 장소가 되고 있어요.

이상을 전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나 문화, 교육이나 연령에 따른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해요.

## 3젠들의 목소리:

우리 운동은 소셜미디어에서 좀더 존재감을 키워야 해요.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이 운동을 알리고 장려할 방법을 찾기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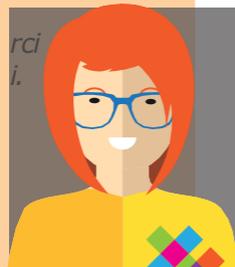
첨단 기술(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기술)과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하여 우리 운동의 생각을 전파해요.

전 세계적 upset과 나눔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세계 모든 남녀 3젠들이 함께 연결되어 경험담을 나누고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공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해요.

# 도전과 과제

>우리는 지속되기 보다는 “수명이 짧은” 일들을 성취 해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 참가자들과의 접촉을 지속시켜 갈 수 있을까요?



# 새세대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마르 10,21)



“젊은이 여러분, 저 높은 곳을 겨냥하도록 하세요. 우리에게는 단 한번의 생이 있어요. 그 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도록 해요.” (끼아라 루빅)

“젊다는 것은 비록 바다가 거칠고, 하늘이 푸르름에 지쳤을 때라도 희망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을 뜻한다.” (밥 딜런)

## 소개

제안에서 보면 새세대의 현실을 위한 몇 가지 우선 순위가 부각되었는데, 동반이나 양성에 대한 필요, 또 충분히 자격을 갖춘 열정적이고 믿을 만한 양성자들이 있어야 할 필요 등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동반해주고, 이 운동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가족”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새세대와 어른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대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어요. 각 프로젝트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일치된세계프로젝트나 패스웨이 등을 “하나의 운동”으로 합심하여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해요.

“플라스틱 제로”이나 “삼림파괴 제로” 같은 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보호 활동들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키우도록 해요.

### 3젠들의 목소리: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양성해줄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옳고 그른 것을 식별할 줄 알려면 우리에게는 어른들의 경험이 필요해요.

## 도전과 과제

- > 이 임무에 적합한 성인 양성자들을 신중히 선정하기.
- > 구역 공동체에 젊은이나 청소년 숫자가 적어요.



# 우리 운동은 한 가족



“각 사람을, 특별히 어린이와 노인, 더 약한 이들, 그리고 종종 우리 마음에서 멀리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

“내 곁에 있는 이는 나를 위한 선물로 창조되었고, 나는 내 곁에 있는 이를 위한 선물로 창조되었어요.” (끼아라 루빅)

“한 사람의 거울 체험 속에서 하느님의 봄이 시작된다.” (이지노 조르다니)

## 소개

우리 모두 끼아라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 “한 가족이 되세요”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유언은 다양한 형태의 소외(따돌림)의 고통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 주어요.

제안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에 따르는 도전, 곧 누구든 “나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열 필요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운동에 모든 문화와 환경에 속한 사람들, 장애인들, 불우한 이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고, 이 운동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조직이 아닌 만남의 기회를 만들자는 요청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령자들을 위한 돌봄을 강화하고, 그들의 풍부한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제안이 있어요.

### 3젠들의 목소리:

1젠인 어른들과 더불어 복음과 이상을 더욱 잘 실천하고, 1젠과 2젠들의 개인적 경험에 귀를 기울여요.

어른들과 2젠들에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현해가는 것을 도와줄 것을 청해요. 그분들에게 우리를 위해 각종 워크숍을 더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또 우리의 현실참여 활동이나 아이디어 실현을 도와줄 것을 청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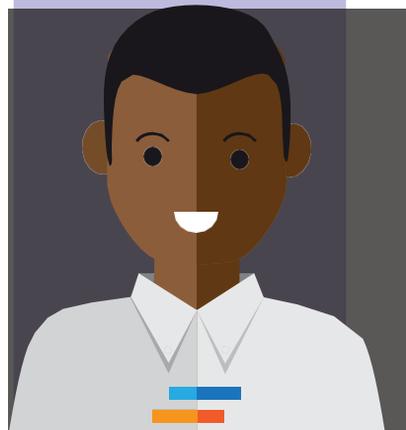
## 도전과 과제

>어떠한 생활방식을 선택하건 모두가 일치 후 보예요.

>이 원칙을 우리의 모임이나 활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마 우리는 사회적인 도전에 응답하려 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모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총회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이론을 앞세우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이 되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끼아라 루빅)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불현듯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내게 그곳은 포크뮤직(민요)과 블루스(재즈)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마크 노플러)

## 소개

총회는 이 운동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요. 제안에 따르면, 이 이벤트를 끼아라의 백성들에게 더욱 가까운 것으로 만들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열망이 드러났어요.

총회의 절차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이 운동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자문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세밀하게 총회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담은 간략하고도 명확한 결론 문서를 통해 총회는 마치 나침반처럼 이 운동의 실천 방향을 제시해요.

수칙을 적은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는 총본부와 각 지역이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해요.

### 3젠들의 목소리:

다양한 세대 간 상호 협력과 사회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를 늘리도록 해요.

세대 간의 대화와 지원, 상호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도록 해요.

우리 구역 공동체부터 시작하여 어른들이나 포콜라레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나가요.

## 도전과 과제

>어떤 곳에서는 총회 준비에 참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 우리의 영성 -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1요한 1,3)

“여러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적인 충실성이라는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곧 원 영감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숨결에 열려있는 도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악보는 하늘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그것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끼아라 루빅)

## 소개

제안들에 따르면 끼아라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깊이 알아가며, 이 영성 특은의 기억과 뿌리를 소중히 여기자는 열망이 부각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 제안에서 이 운동이 참된 복음적 체험을 하도록 되돌아 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선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예요.

이상의 실천에 관해서는, 새로이 하나님과의 일치에 힘쓰고, 우리의 내면 생활을 돌봄으로써 함께 거룩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 3젠들의 목소리:

우리 운동은 우리 3젠들이 계속해서 건설해 가야 할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러니 1젠과 2젠들은 그 토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해요. 만일 우리에게 참된 이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해서 건설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 도전과 과제

>다양한 문화와 언어, 감수성 등을 감안하여 어떻게 이 특은을 표현하고 육화해 낼 수 있을까요?

>이 운동의 여러 회원들은 우리의 ‘고유 목적’은 일치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해요.



# 가정



“가정은 하나의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가정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기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그가 거룩한 세 위격의 친교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애덕을, 성삼위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성덕을 이룹니다. 실제로 사랑 안에서 일하는 것은 성사입니다. 그 성사는 하느님을 인간사 안에 모셔옵니다. 매 순간 그 어떤 곳에서건 그렇습니다.” (이지노 조르다니)

## 소개

가정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새가정운동과 젊은이나 청소년 운동 및 ‘업투미’ 같은 프로젝트와도 협력하여, 하나의 통일체로서 가정을, 부모와 자녀들을 양성하도록 해요.

가정들은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들,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지닌 이들을 지원해야 해요.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도 잊지 말도록 해요. 가정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도와주어요.

콘서트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보내는 시간, 소풍 등의 활동을 제안하고, 신앙이 없는 이들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건설하도록 해요. 여러 가정이 휴가를 함께 보내거나, 원가를 함께하고, 이 운동에서 함께하는 삶이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해요.

### 3젠들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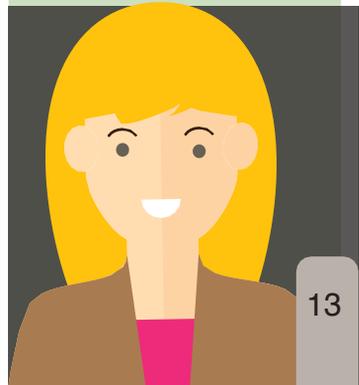
1젠들과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포콜라레와 함께 나아가도록 격려해주세요.

우리 3젠들의 강력한 존재감과 참여, 용기 등을 통해 1젠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요.

에너지를 회복해요. 전에는 끼아라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먼저 시작해야 해요.

## 도전과 과제

- > 여러 가지 각각의 개별적인 활동들이 지나치게 많아요.
- > 부부들이 함께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필요해요.



# 양성과 학습



“마리아사업회 전체가 지혜예요. [...] 지혜에는 학습이 수반되어야 해요.” (끼아라 루빅)

“세상은 학식있는 사람 보다는 성령으로 가득한 현명한 이들을 필요로 해요.” (끼아라 루빅)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말하는 것을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공부하는 것을 배우며, 달림으로써 달리는 것을 배우고, 일함으로써 일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

## 소개

여러 세대 간에 함께하는 활동과 지속적인 양성을 통해 먼저 “하나의 운동”을 이루도록 사람들을 양성해요. 영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운동에서 공들여 마련한 문화적 주제들에 대해서도 양성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준비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지식의 파편화에 맞서도록 해요.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에 유의하도록 해요.

일치된 세계의 비전을 지니도록 양성해요. (일치를 앞당기는 이들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등을 통해) 또 공동체적 식별을 위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 양성을 해요.

구역별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각국/각 시도별로 시작하여 사회적 측면에서의 양성을 시작해요.

이 운동의 미래의 리더들인 젊은 회원들의 고등 교육에 투자해요. 모든 이에게 도달하기 위한 보편적인 주제들에 대한 온라인 양성 자료를 제공해요.

### 3젠들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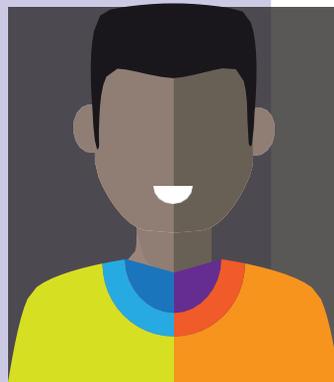
세계적인 교육 지원을 장려해요.

일치의 영성의 관점에서 현재의 이슈들을 다루어요. (왕따, 우울증, 불안 등...).

3젠으로서 우리의 개인적 양성을 강화하여,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삶에서의 크고 작은 선택, 생태환경, 정치, 나눔의 문화 등)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요.

## 도전과 과제

> 우리에게는 좀더 쉬운 용어나 문화적으로 와닿는 주제들이 필요해요.



# 운영



“이 운동에서는 오직 삼위일체적 시스템 만이 효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 거룩하신 성삼위처럼 살아가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 명령을 내리거나 순종하는 것에 앞서 (….)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끼아라 루빅)

“확신은 결코 모든 답을 전부 쥐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열려 있는 데서 옵니다.” (얼 그레이 스티븐스)

## 소개

총본부와 지역들, 지역과 소지역들 간에 식별이 필요한 것에서 좀더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고 참여적인 형태의 새로운 운영 형태를 시험하여, 가장 멀리 외딴 곳에 떨어진 잘 알려져 있는 많은 곳까지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제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문화, 국제성, 세대간 등의 여러 각도에서 보다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각 가지의 존엄성과 특수성도 존중해야 해요.

사업회 각 급 별, 모든 성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명직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요.

삼위일체의 삶에 바탕을 둔 우리의 리더십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부각되었어요. 그런 리더십을 통해 이 영성은 새로운 결정 방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 3젠들의 목소리: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리 사업회 회장이 존재감이 더욱 커졌으면 해요. 그분이 우리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회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신임 회장을 더 잘 알리고 노력하면서, 회장이 참석하는 세계 대회를 더 자주 열었으면 해요.

회장은 더 많이 전 세계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 도전과 과제

>이 운동의 운영 기구는 젊은 세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해요.



# 이상의 육화와 새인류운동의 여러 분야



“기쁜 소식[복음]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 복음의 혁신을 가져가는 것은 가장 강력한 사회 혁명을 촉발시키는 것과도 같아요.” (끼아라 루빅)

“육화란 인류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간다는 것을 뜻해요. 하느님께서 늘 인류에게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말이에요.” (모리스 준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을 상상하거나 창조하거나 건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윌트 디즈니)

## 소개

우리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나 협회들과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요. 참된 육화를 이루려면 우리는 일치의 문화와 실천이라는 우리만의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 이상을 전달하고, 환경세 포를 되살리도록 해요. 이 운동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그 지역의 미션이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령, 패스웨이)를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국제 기구들과의 관계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을 격려하는 활동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 내면에 교회를 위한 “열정”을 다시 소생시키도록 해요.

사회적으로는 사회학교를 다시 개설하고, 증거를 하는 환경세포들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회원들이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해요. 실업자나 난민들 같은 사회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연대의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 도전과 과제

>어떻게 하면 “우리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현대 사회의 상처들을 직면하며 우리의 사회사업들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 3젠들의 목소리:

서로 도와 우리가 제안한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시작해요. (하나의 도시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운동의 어른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 활동을 벌여요.

3젠들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어요:

“제로헝거”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하고, 구체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해요.

유엔이나 유네스코, 세계식량농업기구 등 국제 기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해요.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 회칙과 규칙들



“복음에서는 그분 성령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자’라는 이름이지요. 그분은 여러분을 지원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기억하고, 식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미래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운동의 회칙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실히 머무르실 것이며, 그러면 바로 그분께서 이 운동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끼아라 루빅)

## 소개

회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그것은 창설자의 생각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지요. 회칙 개정 기간 동안 다루게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신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업회 총본부 평의회에 젊은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

다양한 가지의 규칙서들을 현 시대의 시각에 맞추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원칙들을 지니지만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하지는 않는 것.

### 3젠들의 목소리:

이 운동에서는 예를 들어, 현재 젊은 세대들의 상황 등에 대해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는 3젠들의 관점에 좀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 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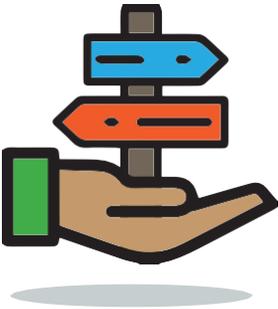
>이 운동의 갈래들을 재편성하고, 성별에 따른 구분을 없애요.

>총회에 모든 회원들이 같은 비중으로 대의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신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 여러 성소와 갈래들



“사랑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타고난 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생을 가져다 하나의 걸작으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요한 바오로 2세)

“늦건 빠르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눈을 통해 한 가닥 황금실이 온갖 사건과 사물들을 함께 꿰어 멋진 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놓인 그 작품이 바로 우리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끼아라 루빅)

“성소는 그저 다양한 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험해 보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으로써 얻어내는 하나의 응답입니다.” (에딧 슈타인)

## 소개

새롭고도 과감한 방식으로 다양한 성소와 현실을 알려 주어요.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로 포콜라레를 옮겨 가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임시 포콜라레를 열어요

소셜미디어에 우리 운동의 모든 성소를 소개하고, 이 운동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활짝 열어요.

대중운동들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이 운동이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속도로예요.

젊은이들의 세계는 유연성이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피고, 젊은 세대들과 어른들 사이의 상호 교환이 필요해요.

포콜라레를 젊은 세대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들도록 해요.

### 3젠들의 목소리:

세상에 남겨 포콜라리노들이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운동을 널리 알려요.

영상이나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운동이나 우리의 목표를 알리도록 해요. 물론 주목을 집중시키는 표현을 통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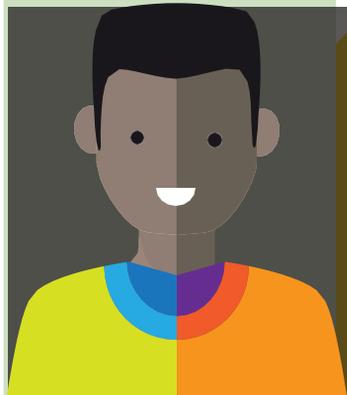
세계적 차원에서 우리 운동의 소식을 매일 전달함으로써, 모두에게 다가가 이상을 전달하도록 해요.

## 도전과 과제

>우리는 이 운동의 모든 젊은이들을 젠으로 생각할 방도가 있을까요?

>갈래들 사이에서 서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가지 안에 갇혀있는 경향이 있고, 너무나 구분이 심해요.



## 나의여섯가지 우선 순위:

( \_ ) 환경과 미래

( \_ ) 나눔과 경제

( \_ ) 구역 공동체

( \_ ) 대화

( \_ ) 전달과 소통

( \_ ) 증거

( \_ ) 새세대

( \_ ) 우리 운동은 한 가족

( \_ ) 총회

( \_ ) 우리의 영성 -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

( \_ ) 가정

( \_ ) 양성과 학습

( \_ ) 운영

( \_ ) 이상의 육화와 새인류운동의 여러 분야

( \_ ) 회칙과 규칙들

( \_ ) 여러 성소와 갈래



[centrogen3f@focolare.org](mailto:centrogen3f@focolare.org)

[gen3m@focolare.org](mailto:gen3m@focolare.org)

[centro.rpu@focolare.org](mailto:centro.rpu@focolare.org)